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3 전국생활체육대학생대회 개막식에 입장하는 광주·전남선수단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제공>

생활체육 동호인 한마당 축제 울산서 '팡파르'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학생대회 축전'이 울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꿈의 도시 울산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축전에는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등 5개 종별, 41개 정식종목, 전국 17개 시·도 선수와 임원 등 6만 여명이 참가해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축전에 광주선수단은 게이트볼, 축구, 파크골프 등 29개 종목 570명이 출전해 '스포츠킨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인다.

광주선수단 최고령은 게이트볼 종목 김승중(85·남) 선수로 평소 여러 대회에 참가해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

2024 전국생활체육대학생대회 오늘부터 나흘간 열전 돌입

광주, 570명 참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홍보
전남, 928명 출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 홍보

는 만큼 젊은이들 못지 않은 열정과 투혼으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는 각오다.

또 합기도 종목의 이우빈(9세·남)군은 최연소 참가자로 합기도 13세 이하부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26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8번째로 입장하는 광주선수단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나의 일이 빛나고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를 대표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의 장에 함께하길 바라며, 광주시체육회는 선수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검도, 게이트볼,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등 41개 종목 중 33개 종목에 928명(임원 93·선수 835명)이 참가한다.

전남을 대표해 출전할 선수 중 최고령은 게이트볼에 참가하는 고재호(90세·남)씨이며, 최연소는 롤러종목에 참가하는 이재운(9세·남)군이다.

육상 멀리뛰기 김형찬(62세·남)씨, 육상 로드레이스 5km 최광임(71세·남)씨, 육상 로드레이스 10km 김동욱(68세·남)씨는 대회 2연패를 노린다.

또, 김성봉(76세·남)·오이순(69세·여)씨 부부가 4번째 도전에 나서며, 김성봉씨는 개인통산 4연패(제30회 문광부장관배 전국생활체육육상경기대회, 2021-2023년 전국생활체육대학생대회)에 도전한다.

전국생활체육대학생대회 개회식에서 차기개최지로 개회식에 첫번째로 입장하는 전남선수단은 오는 5월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모두 전남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라며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대축전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99S'

KIA 정해영, KBO리그 최연소 100S 달성 눈앞

올 시즌 세이브 부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 정해영이 KBO 리그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해영은 지난 23일 키움과의 원정 경기에서 10회 말에 등판해 무실점으로 5-2팀 승리를 지키며, 시즌 9세이브를 수확했다. 동시에 개인통산 99세이브를 기록하며, 100세이브 달성에 단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KBO 리그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은 2000년 임창용(삼성)이 23세 10개월 10일로 가지고 있다.

24일 현재 22세 8개월 1일의 나이인 정해영은 임창용의 기록을 24년만에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7월1일 광주 한화전에서 데뷔 첫 등판과 함께 첫 구원승을 달성한 정

■정해영 연도별 세이브 (24일 현재)

|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계 |
|-----|-------|-------|-------|-------|-------|----|
| 세이브 | 1 | 34 | 32 | 23 | 9 | 99 |

■최연소 100세이브 Top3

| 순위 | 선수명(팀) | 경기장 | 상대팀 | 경기수 | 달성당시 연령 | 비고 |
|----|---------|-----|-----|-----|--------------|-------|
| 1 | 임창용(삼성) | 시민 | 해태 | 261 | 23세 10개월 10일 | |
| 2 | 고우석(LG) | 고척 | 키움 | 277 | 23세 10개월 11일 | |
| 3 | 오승환(삼성) | 무등 | KIA | 180 | 25세 2개월 3일 | 최소 경기 |

해영은 같은 해 8월30일 홈 구장인 광주에서 열린 kt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첫 세이브를 올렸다. 정해영은 2년차인 2021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팀의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고, 34세이브를 달성하며 팀의 핵심 불펜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꾸준히 세이브를 쌓아 올리며 KBO 리그 100세이브를 올리는 역대 22번째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해영은 4년 연속 두 자릿 수 세이브 기록에도 세이브 한 개만을 남

기고 있다.

달성 시 KBO 리그 19번째이며, 4년 모두 KIA에서만 활약한 투수로서 최초로 달성하게 되는 기록이다. 또한 이번 시즌 20세이브 이상 달성 시에는 역대 7번째 4년 연속 20세이브를 올리는 선수가 된다.

정해영은 올 시즌 11경기에 등판해 9세이브(1승1패)를 수확, 2위 삼성의 오승환(7개)에게 2개 차이로 앞서며 이번 시즌 단독 1위에 올라있다. /주홍철기자

'뉘시꾼 스윙' 최호성, KPGA 챔피언스투어 대회 우승

'뉘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이 한국프로골프(KPGA) 챔피언스투어 대회에서 우승했다.

최호성은 24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CC(파72·6천801야드)에서 열린 제3회 참마루건설 시니어오픈(총상금 1억 5천만원)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까지

최종 합계 6언더파 138타로 우승했다.

올해 KPGA 정규투어와 챔피언스투어, 일본 시니어투어를 병행하는 최호성은 우승 상금 2천400만원을 받았다. 1973년생 최호성은 챔피언스투어 두 번째 대회 출전에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연협뉴스

임석규를 1타 차로 제친 최호성은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 3승, KPGA 투어에서 2승을 거뒀다.

최호성은 "챔피언스투어 첫 우승을 달성해 기쁘다"며 "우승의 좋은 기운을 갖고 내일 개막하는 KPGA 투어 우림금융 챔피언십에서도 컷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협뉴스

광주시청 육상 400m 계주 '김국영·김태호·고승환·이재성'

36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도전

5월5-6일 바하마 세계계주선수권 14위 안에 들면 파리행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36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을 노린다.

대한육상연맹은 5월5-6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리는 2024 세계계주선수권대회에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을 파견한다.

바하마 대회 상위 14위 안에 들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다.

남자 400m 계주에는 총 32개국 12팀이 출전해 예선과 패자부활전, 결선을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한다.

한국은 남자 100m 한국 기록(10초07)을 보유한 김국영(33)을 비롯해 김태호(31), 고승환(26), 이재성(22·이상 광주시청), 이준혁(23·국군체육부대), 이시몬(23·안양시청)까지 6명으로 400m 계주팀을 구성했다.

경기는 4명이 치르지만, 예선과 패자부활전, 결선에 계주 멤버를 교체할 수 있다. 이 중 김국영, 고승환, 이재성은 지난해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다.

2023년 10월3일 열린 아시안게임 결선에서 한국은 이정태,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 순으로 달려 38초74에 결승선을 통과하고 3위에 오르며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37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38초74의 기록으로 한국 남자 400m 계주팀은 '파리 올림픽 랭킹' 22위에 자리했다.

바하마 나소에서 14위로 순위를 끌어올려야 간절히 바라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한국 육상이 계주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건 개최국 자격으로 나선 1988년

서울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파리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현역 남자 단거리 최고 스타 노아라 일스를 중심으로 대표팀을 구성한 미국, '신성' 아키 블레이크를 앞세운 자메이카는 물론이고, 남자 400m 계주에서 세계 정상급인 일본 등 한국보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팀들이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바하마 대회에 정예 멤버를 내세웠다.

하지만, 대한육상연맹은 계주 대표팀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대표 선수들도 '한국 기록 경신'과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100m에 출전한 김국영은 "개인적으로는 올림픽에 나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후배들과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협뉴스

'전남 전국장애학생체전, 역대 최고 대회로'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오늘 2차 대표자 회의...다양한 문화행사·체력프로그램 성공체전 박차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다음달 14일부터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제2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5-2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제2차 대표자 회의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남도, 중앙종목단체,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다.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장애학생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천888명의 선수단이 17개 종목(육상종목5, 보급종목11, 전지종목1)에서 기량을 겨룬다.

전남도와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7개 시·도의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여러 문화행사도 체전 기간 중 열기로 했다. 제3회 전남도 청소년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대회 1차 대표자 회의가 지난달 12-13일 주 개최지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대회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박람회를 개최하고 목포 평화광장과 남약 김대중광장 일원에서 선수단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시군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도 체전 기간 전후로 집중개최된다.

또 전국 최초로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한 17개 경기장에 레이저 사격, 빌런아트, 마카롱 디자인, 거울 만들기 등

대회 기간 학생 선수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와 20만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감동·희망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